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52> 염불이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내가 처음 집에 들어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모르고 살 때는 스님들이 염불하는 것이 참 싫었다. '염불보다 갓밭'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던 탓인지 나도 모르게 어떤 선입관이 생겨 정아한 염불 소리에도 감동보다는 거부감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러다 뒷날 염불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나서서 염불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염불을 권하고 있다. 알고 보니 염불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큰스님들의 수승한 법문이었기 때문이다. <선가귀감> 52장에서 말한다.

念佛者 在心口誦 在心口念 徒誦徒念 於道無益

염불이란 무엇인가? 입에 부처님이 있을 때는 부처님만 소리 내어 외운다고 하고, 마음에 있을 때는 부처님을 본다고 한다. 부처님을 부질없이 입으로 외우기만 하고 마음에서 보지 못한다면 도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서산 스님은 말한다.

阿彌陀佛六字法門 走出輪迴之捷徑也 心則緣佛境界 憶持不忘 口則稱佛名號 分明不亂 如是心口相應 名曰念佛

'나 무 아 미 타 불' 여섯 자 법문이야말로 정말 윤회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마음에서 부처님의 세상을 잊지 않고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똑똑히 불러, 이처럼 마음과 입이 서로 잘 어우러져야 이를 염불이라고 한다.

오조 홍인은 "본디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서방세계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 육조 스님은 "늘 다른 부처님을 생각하면 생사를 면치 못하나 '내 본마음'을 지키면 피안에 도달한다" 하고, 또 "자신의 성품에서 부처님을 찾을 일이요 몸 밖에서 찾지 말라" 하며, 또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로써 극락왕생을 구하나 깨진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할 뿐이다"라고 하고, 또 "중생이 마음을 깨달아 스스로 제도하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할

로 '해야될 수 없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고 또는 '해야될 수 없이 영원한 빛'이라고 하니, 서방세계 으뜸가는 부처님의 명호이다. 수행할 당시의 이름은 법장비구인데 세자재왕(世自在王) 부처님 앞에서 마흔여덟 가지 원을 세워 "제가 성불(成佛)할 때 서방세계 해야될 수 없이 많은 하늘과 인간 및 꿈틀거리는 작은 벌레조차 내 명호를 기억하고 열 번 소리 내어 부르거든 반드시 저의 국토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미타참법>에 "자력(自力)과 타력(他力)에서 하나는 더디고 하나는 빠르다.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이 나무를 심어 배를 만들려면 더디니 자력에 비유하고, 남의 배를 빌려 바다를 건너면 빠르니 그것은 부처님의 힘에 비유한다"라고 말하였다. 또 "어린애가 큰 불이나 물에 쫓겨

걱정하는데 더구나 지옥을 연화세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인가? 저 부처님은 해야될 수 없이 많은 세계를 눈앞에서 펼쳐보지만 나는 담 넘어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서방세계를 눈앞에서 펼쳐보듯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때문에 사람마다 그 성품이 부처라도 행실은 중생이니 그 모습과 쓰임새를 논한다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규봉 스님은 "부처의 이치를 단박에 깨달아도 중생의 행실은 반드시 짐차 뒤야 나가야 할 것이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런즉 자신의 성품이 아미타불이라는 사람에게 묻노니, 어찌 태어날 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을 수 있고 자연적으로 생긴 아미타 불이 있을 수 있겠느냐? 스스로 조금 생각해보면 어찌 이를 스스로 알 수 없겠느냐? 죽을 때 오는 숨 끊어질 마지막 고통에서 정말 자재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한때 잘난 마음으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질 일을 만들지 마라.

또 마명과 용수도 다 조사스님인데 분명히 가르침을 내려 극락왕생을 간절히 권했거늘 내가 누구라고 극락왕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인가? 부처님께 서 친히 "서방극락정토가 여기서 멀리 십만(十萬) 팔천리(八千)나 된다"라고 한 것은 문란 사람을 위해 현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서방세계가 여기에서 멀지 않다. 마음이 곧 부처니라" 한 것은 총명한 사람을 위해 근본 성품을 말씀한 것이다. 가르침에는 방편과 실상이 있고 말씀에는 드러난 뜻과 감추어진 뜻이 있으니, 아는 것과 행실이 어울리는 사람은 멀거나 가까운 서방세계 이치에 다 통한다.

어리석은 중생이 생사를 여의고 부처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다해 부처님 명호를 불러야 한다. 입으로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귀로는 똑똑히 들으며 마음에는 부처님 세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생사의 윤회를 끊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원순 스님(승사님 인입)

중생이 생사를 여의고 부처님 세상 가기 위해

심신다해 명호 부르는 것은 윤회 끊는 지름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이 처럼 큰스님들은 본디 마음을 바로 가리켰기 따로 다른 방편을 쓰지 않았다.

이치로는 그렇지만 현상으로는 극락 세계 아미타불이 확실하고 아미타불의 마흔여덟 가지 큰 원력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열 번 소리 내어 아미타불을 부르면 이 원력의 힘으로 극락왕생하여 바로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삼세제불(三世諸佛)은 똑같이 말씀하셨고 서방세계 보살들도 똑같이 그곳에 태어나기를 원하였다. 더구나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극락세계에 왕성한 사람들의 행적이 분명하게 전해오고 있으니 모든 수행자는 이 점을 잘못 알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에 힘쓸 일이다.

산스크리트어의 '아미타'는 우리말 큰 소리로 살려 달라 애절하게 부르짖으면 부모들이 급히 달려와 구해내듯 사람들이 죽을 때 큰 소리로 염불하면 신통감 같은 부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맞이해 주겠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자비는 부모보다 더 지극하고 중생의 생사는 물이나 불의 재앙보다 더 심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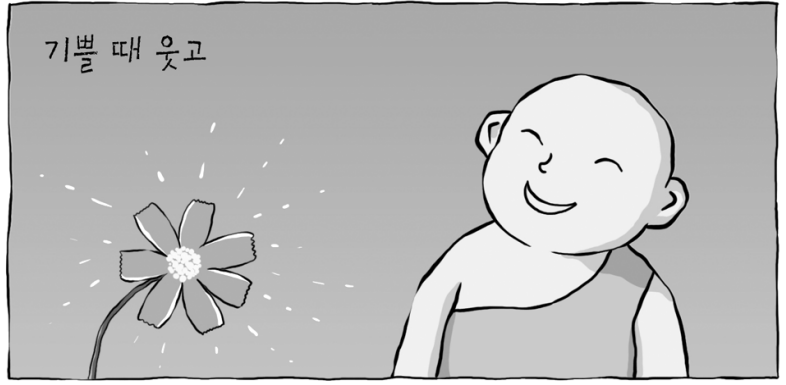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이 정토이니 세사세계 정토에 가서 날 것이 무엇이며, 자기 성품이 아미타불이니 아미타 불을 보려고 애쓸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옳은 듯하지만 틀렸다. 저 부처님은 탐욕과 성냄이 없는데 그럼 나도 탐욕이 없고 성냄도 없단 말인가? 저 부처님은 지옥을 연화세계로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지만 나는 지어 놓은 업 때문에 늘 지옥에 떨어질까

며,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생각만 해도 구원을 받아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해, 타력염불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나무는 '일심(一心)'으로 부처님께 귀의 구원을 바라는 원(願)이 됩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은 구원을 실천하는 활동으로서 행(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나무아미타불은 원행(願行)이 구축된 여섯 글자라는 뜻으로 육자명호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긴 나무란 말이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심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등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김철우 기자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llust.org)

희망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나무(南無)

텔레비전 사극 배우가 극중에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하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기가 막힌 상태에서 툭 던져지는 대사로 흔히 이 말이 쓰이곤 하는데, 그럼 여기서 '나무'란 무엇일까요?

'나무'는 산스크리트어로는 'namas'로, 예배(禮拜)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중국에서는 나막(那末), 나막(那末, 南莫) 등 여러 가지로 음사하고 있지요. 그 뜻은 '경례, 공경, 귀경, 귀례, 귀명, 귀의' 등으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가령 나무 뒤에 아미타불을 붙이면, '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이 됩니다. 나무는 보통 염불할 때에는, 불·보살의 명호나 경전의 이름 앞에 붙이며 귀의의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불교? '나무아미타불'은 육자명호(六字名號)라고 합니다. 여섯 글자로 이루어졌으며,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생각만 해도 구원을 받아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해, 타력염불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나무는 '일심(一心)'으로 부처님께 귀의 구원을 바라는 원(願)이 됩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은 구원을 실천하는 활동으로서 행(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나무아미타불은 원행(願行)이 구축된 여섯 글자라는 뜻으로 육자명호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긴 나무란 말이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심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등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27·끝)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73강 횡설수설의 강의를 마치며...

2년 반의 긴 횡설수설을 어떻게 마감할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날벼락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폐간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등불 하나가 위태롭게 깜박이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그러도 될까요.

1. 왜 현대불교신문인가

터놓고 물어봅시다. 지금 불교는 어디 있습니까. 불교가 어디에서 시퍼런 생명력을 얻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찰입니까, 서점에 진열된 불교책들입니까, 스님들이 들고 있는 간화 속에 있습니까. 사람은 다만 경배의 공간이고, 책들은 일방적 훈계이며, 간화는 일초직업의 예외적 말후구(末後句)입니다. 여기 공통되는 것은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오직 '소통'하는 것, 그 현장에만 살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만 이름입니다. 전통은 오직 사람에게서만 살아 있고, 사람으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십년전(以心傳心)의 뜻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을 죽이면, 그 소통의 큰 공간 하나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 다른 신문들이 백가쟁명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종단의 기관지나 특정 사찰의 소식지를 떠나, '현대'의 '대중'들에게

불교를 일깨우고, 미래를 계몽하고 있는 불교의 신문이 대체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현대불교신문이 없었기에 전문기인 저도 텅 없이 불교의 문제며, 화두선의 효용 등을 대놓고 시비해도, 그것이 장강의 한 지류, 다양한 방편 속의 하나로 그저 묵묵히 일리로 수용될 수 있었습니다. 열린 자세 하나,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불교의 생명은 소통과 관용, 그리고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 박자를 동시에 갖춘 신문이 어디 여럿 있다고 보십니까? 안타깝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름 그대로 그 삼박자 확신의 선두에 있고, 그런 점에서 불교계의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이 자신과 미래를 제발 통촉해주시어 합니다. 대중들은 이 희망의 불씨 살리기에 촛불 하나라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대중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인터넷 환경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다양한 불교의 목소리와 종교간 대화를 주도했으며, 한국불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과감한 주장과 목소리들을 담아내었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이 한마을선원으로 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력자인 대행스님은 여성으로서, 보수적 종단에 대해 독자

적 확신을 이룩한 분이십니다. 그런 이력이 현대불교신문 창간과 정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큰 직책을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한마을선원이 현대불교신문을 자신의 기관지로 낙착시키지 않은 것, 이것이야말로 공평 중의 공평입니다. 나는 거기서 <금강경>의 말씀처럼, 법을 앞세울 뿐 이름을 따지지 않는, 삼륜정정(三輪淨淨)의 큰 원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주 오는 신문에 대행스님의 법문 두 페이지가 실려 있을 뿐,

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좁은 생각이었던 아예 창간을 없애거나 10여년 전에 기초를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경영부담이 너무 컸거나, 조직과 인력이 잘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둘 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경영의 부담은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도 저도 아니되면 자살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거나, 새로운 인수를 찾아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그동안 일해

성과와 인지도, 그리고 자원에 주목하고, 그 가능성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혜와 솜씨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면, 한국불교의 중심 매체로, 나아가 한국불교의 글로벌화의 첨병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3. 현대불교신문을 폐간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커다란 실수로 판정될 것입니다. 한마을선원에 주는 타격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법보시를 위해 전법을 위해

아주심시오, 사람이든 조직이든 처음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중요한 법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일해왔던 식구들이 직장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때, 불교의 자원 손실은 돌래지고라도, 가장이요 기동인 그들이 안을 좌절과 고통을 남의 일로 치부해 들 것입니까. 굶주린 독수리에게 몸을 찢어 내어주려는 불교의 가르침을 나서서 실천하지는 못할 망정,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제 식구를 궁한 사정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까. 씩씩 빅, 생각을 크게 가집시다. 미흡하다면 보완해 나가면 되고, 조직과 운영은 비전에 따라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은 리더십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부수기는 쉽지만, 세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4. 학생이나 부하나 간에 '명령'만으로는 사람을 심복시킬 수 없습니다. 명령의 이유와 근거, 그리고 효과와 비전이 납득될 때, 그 명령은 비로소 '나의 것'으로 내 몸의 발현으로 추진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를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 길을 걸어와야 하고, 오랜 준비를 거쳐야 합니다. 뜻밖은 버려야 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길을 건너지 못합니다. 하물며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려는 분이 계시다면 한사코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무는 문자 밖이 아니라, 그 문자의 도정 속에 있습니다. 몇몇 화두가 문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토록 애썼다면, 지금 화두는 문자의 '소통' 속에서 영글어가는 과일이고, 깊어가는 강물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신문'이 바로 그 달라진 불교의 시험장이고 포교장입니다. 신문 없이 불교없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지켜주시시오. 한마을선원 이사진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불교신문은 '신판 대장경'



은 사람에 대한 예의이고, 또 신문이라는 세 불발 흥포의 귀한 매체를 아끼는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신문을 하루도 보지 마십시오.

조직과 인력이 잘 기능하고 있지 않다면, 개선하고 조정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십과 수완에 따라 한 조직은 전혀 다른 얼굴로 개선되고 혁신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애고 부수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현대불교신문의 그동안의

정재를 아끼지 않더라는 평판이, 수지타산에 맞추어 포교의 장을 받아버린 세속적 집단이라는 혐의를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경쟁과 자력의 여유를 주지 않고, 서둘러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비난까지 가세하면, 한마을선원은 들어킬 수 없는 낙인을 찍혀 받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명할 수 없겠거든,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유와 최후의 지원은 아끼지 말